

## 경남지역 여대생의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요구<sup>1)</sup>

### 01.

조사  
개요

### 02.

경남지역 일자리에 대한  
여대생의 인지도 및 인식

### 03.

경남지역 여대생을 위한  
진로·취업 지원 및 정책 수요

### 04.

정책  
방안

- 2022년 기준 경남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23,874명(80.9%)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대학진학은 11,912명(85.7%), 남성은 11,962명(76.7%)임. 경남의 대학진학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남지역의 대학 졸업자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여성 취업률은 58.6%, 남성 취업률은 62.7%로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학 졸업 후 청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4년제 일반대학의 진로·직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대학생의 진로 준비단계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실천적인 과업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임. 일반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에서는 진로취업지원 부서를 운영하고 경남 대학생을 위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대생의 특징이나 요구를 반영한 젠더 관점의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여대생들의 진로·취업과 관련된 경험에서 성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슈이며, 경남지역 대학생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여성은 취업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로의 이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남이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기술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단계에서부터 여대생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남지역 4년제 일반대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 대한 인식과 대학의 진로 및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여대생이 지역의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본 내용은 2023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지역 여대생의 진로·직업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함

# 01. 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은 경남지역 4년제 일반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재학(재적) 중인 여학생(3~4학년 이상)이며, 717명이 응답함
- 조사 기간은 2023년 9월 8일 ~ 2023년 9월 22일(14일간),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전문 조사업체 활용)를 실시함
- 조사 내용은 예비 창업자의 경우 희망 사업체 일반현황, 창업 준비 단계,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함

표1 조사 내용

구분	세부 문항
경남지역 일자리에 대한 여대생의 인지도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선택의 주요 조건</li> <li>• 지역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li> <li>• 지역 제조업 일자리에 관심 없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li> <li>• 지역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이미지</li> <li>• 지역 제조업에서 제공받길 원하는 정보</li> </ul>
경남지역 여대생을 위한 진로·취업 지원 및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대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필요 여부와 이유</li> <li>• 여대생 일자리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참여하지 않는 이유</li> <li>• 여대생이 희망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li> </ul>

# 02. 경남지역 일자리에 대한 여대생의 인지도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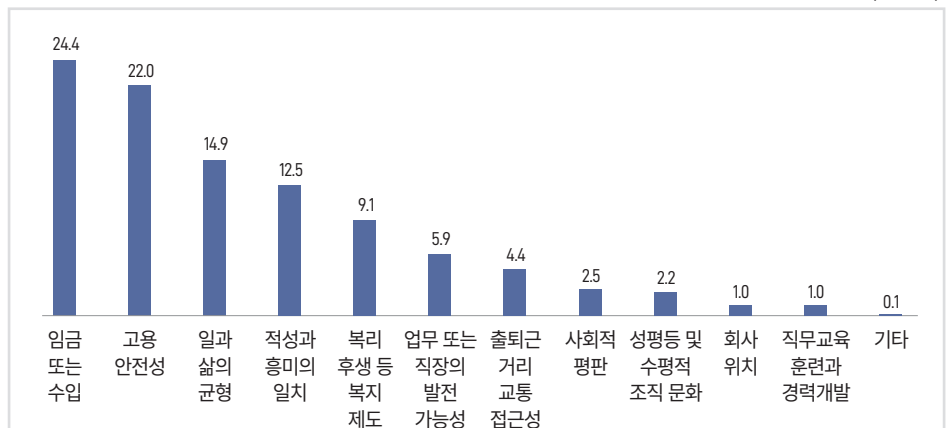
## 1) 일자리 선택의

### 주요 조건

-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임금 또는 수입'이 480명(2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용 안정성' 432명(22.0%), '일과 삶의 균형' 293명(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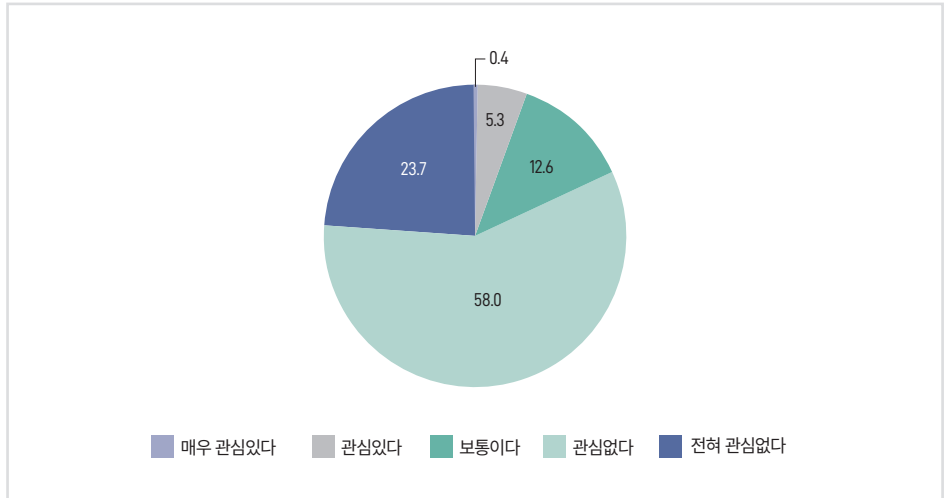
그림1 일자리 선택의 주요 조건



## 2) 지역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관심 있다'(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 41명(5.7%), '보통이다' 90명(12.6%), '관심 없다'(관심 없다 + 전혀 관심 없다) 586명(81.7%)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공학 계열 관심도가 2.25점으로 가장 높고, 인문/예체능 계열 1.93점, 의약 계열 1.90점, 교육/사회 계열에서 1.89점 순으로 나타나 자연/공학계열에서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2 지역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 제조업 일자리에 '관심 있다'(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와 '보통이다'로 응답한 131명을 대상으로 경남의 제조업 주력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지능형 의료부품·바이오 헬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생산'이 2.36점으로 가장 높고, '방산 구성품 개발·생산·정비'(2.33점), '나노 에너지 융합 소재 부품 개발 생산관리' (2.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3 지역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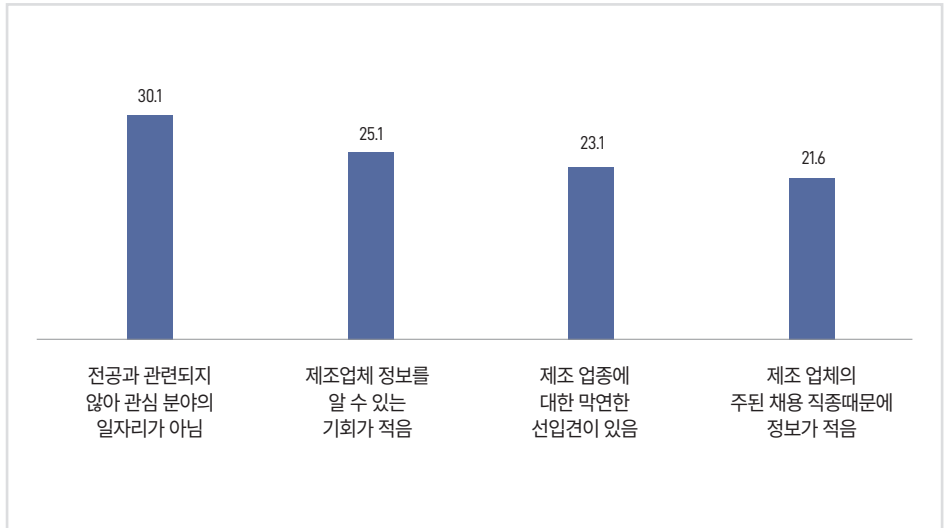


### 3) 지역 제조업 일자리에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 (복수응답)

· 제조업 일자리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 586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일자리에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공과 관련되지 않아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아님'이 365명(30.1%)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음' 221명(25.1%), '제조업종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있음' 203명(23.1%), '제조업체의 주된 채용 직종 때문에 정보가 적음' 196명(21.6%)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4** 지역 제조업 일자리에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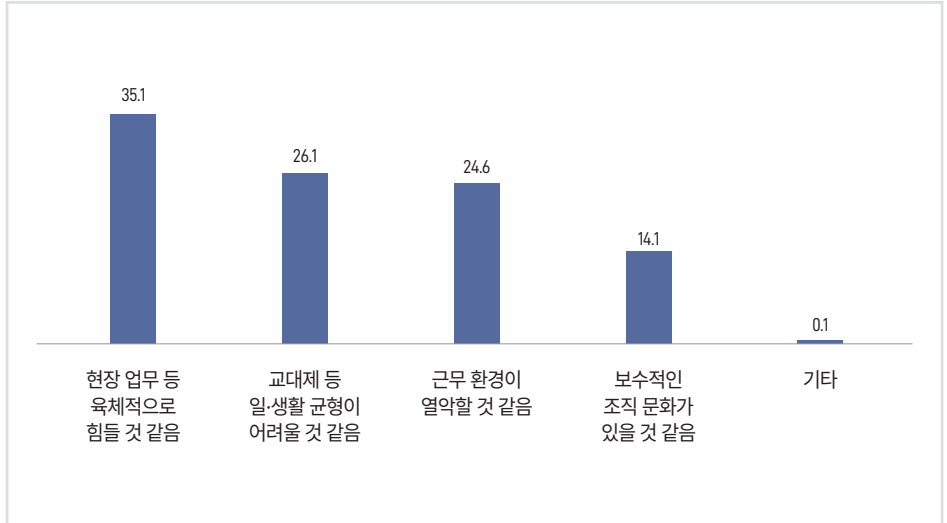


### 4) 제조업 일자리 이미지 (복수응답)

· 제조업 일자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살펴보면, '현장 업무 등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음'이 381명(35.1%)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대제 등 일·생활 균형이 어려울 것 같음' 283명(26.1%), '근무 환경이 열악할 것 같음' 267명(24.6%),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있을 것 같음' 153명(14.1%)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5**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이미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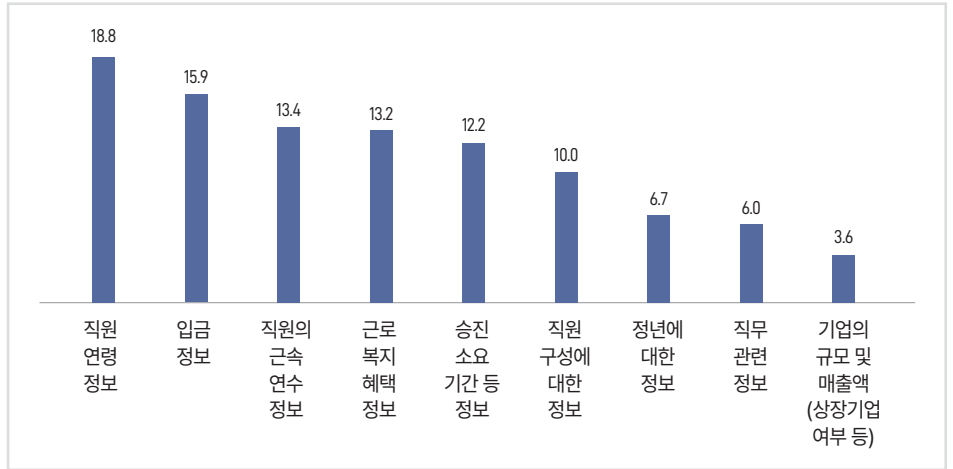


### 5) 경남지역 제조업에서 제공받길 원하는 정보

- 취업 준비 과정 중 경남지역 제조업에서 제공받길 원하는 정보를 살펴보면 직급별·성별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직급별·성별 평균 연령 정보'가 18.8%로 가장 높고, '직급별·성별 임금 정보'(15.9%), '직급별·성별 평균 근속연수 정보'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6 경남지역 제조업에서 제공받길 원하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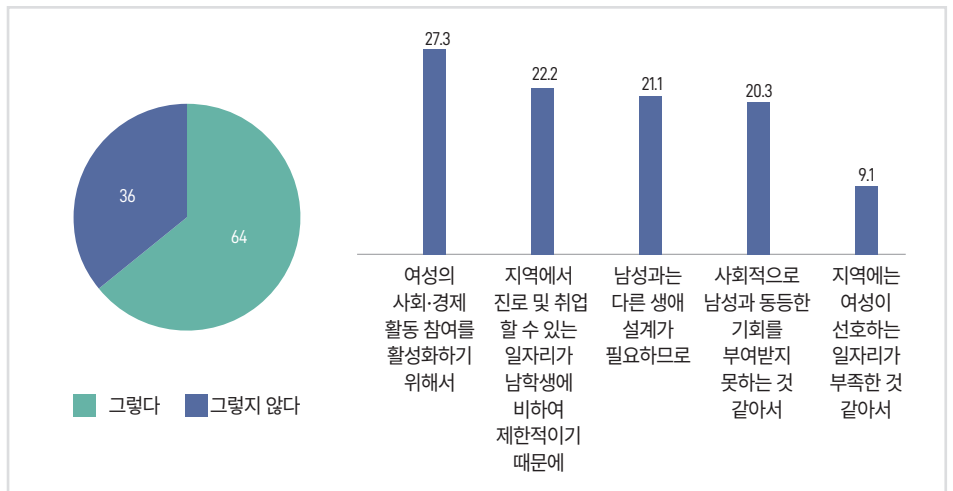
## 03. 경남지역 여대생을 위한 진로·취업 지원 및 정책 수요

### 1) 여대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필요 여부와 이유

- 대학에서 여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중에 459명 (64.0%)으로 나타남
- 진로 및 취업 지원 필요 이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가 376명 (27.3%)으로 가장 높고, '지역에서 진로 및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학생에 비하여 제한적이기 때문에' 306명(22.2%), '남성과는 다른 생애 설계가 필요하므로' 291명(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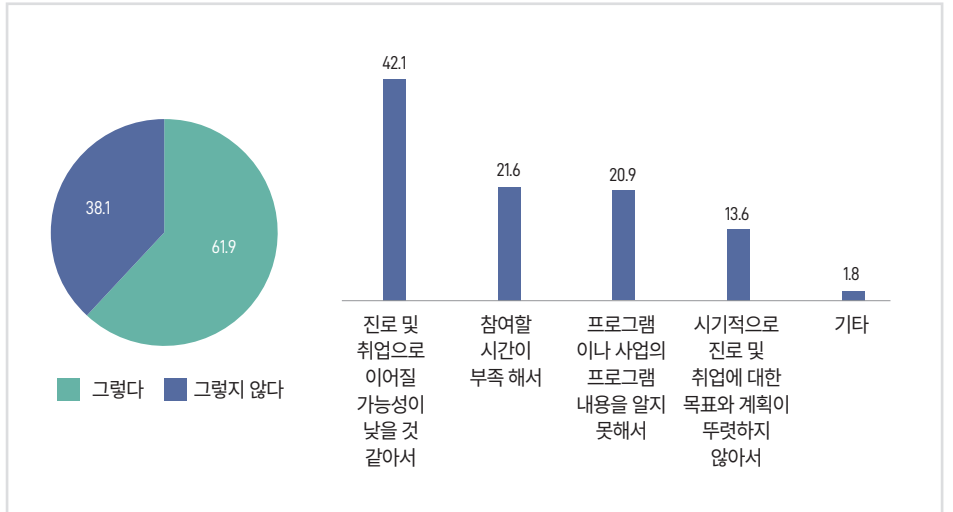
그림7 진로 및 취업 지원 필요 여부와 이유



## 2) 여대생 일자리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참여하지 않는 이유

- 여대생 일자리 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 시 참여할 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444명(61.9%)이 참여한다고 응답함
- 여대생 일자리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가 115명(42.1%)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59명(21.6%),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을 알지 못해서' 57명(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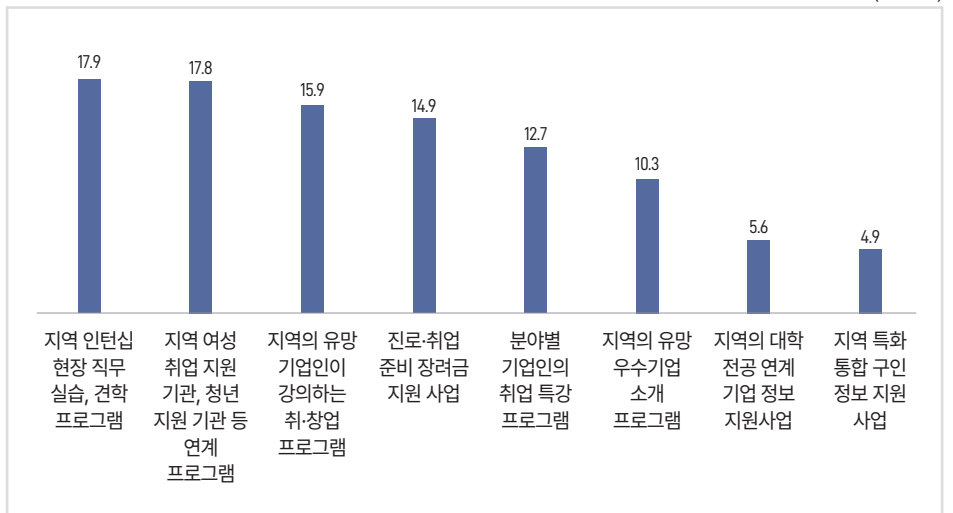
그림8 여대생 일자리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참여하지 않는 이유



## 3) 여대생이 희망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 여대생이 진로-취업 준비 과정 중 지원받길 희망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지역 인턴십 현장 직무 실습, 견학 프로그램'이 385명(17.9%)으로 가장 높고, '지역 여성 취업 지원 기관, 청년 등 연계 프로그램' 382명(17.8%), '지역의 유망 기업인이 강의하는 취·창업 프로그램' 343명(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9 여대생이 희망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 04. 정책 방안

### 1) 제조업 관련 여성인재 육성 환경 조성

- 경남지역 여대생이 지역의 주력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학력 단계별로 제조업 분야의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의 여대생뿐 아니라 초.중.고의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프, 견학 등의 체험형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 단계에서는 여대생들에게 제조업 현장에 대한 인식 및 직무 인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여대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제조업체 탐방이나 직무 체험을 제공하여 체험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역 제조업체에서 여대생 맞춤형으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2)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지원

- 이공계열 전공을 제외한 다른 전공계열 여대생의 경우는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경남지역은 이공계 분야에서 여대생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이공계열의 진학이 높은 편이며, 지역에서 이공계열 여대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청년여성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직장을 찾아 이동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공계 분야는 진입단계부터 육성된 여성인력이 적은 편으로 이공계 여성인력을 활용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공계 여성인력 육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이공계열 졸업 여학생이 노동시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이공계열 여성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하는 사업을 경남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3) 여대생 경력개발 지원 체계 마련

- 여대생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성별 직무분리 구조로 여성들이 남성 중심 일자리에 편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임. 여대생의 직업역량을 강화해 취업·진로개발 관련 어려움에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여성이 자기 주도적인 관점에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개발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여대생 경력개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여성취업지원기관과 대학의 진로취업지원 부서가 협업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취업지원기관이 여대생 등 청년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경력유지-사후관리까지 차별화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